

배우 조니 뎀 'MTV영화상 최고연기상'



배우 조니 뎀이 해적 선장 역으로 2007 MTV 영화상 최고연기상을 차지했으며,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이 최고영화상에 뽑혔다.

브룩하이머는 "오늘의 영광을 가능케 한 사람"이라며 조니 뎀을 치켜세우면서 "그가 없었다면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딸 광주 남기고 러시아 간 학부모

참교육 실천 시교육청에 '감사의 편지'



초등학교 딸을 광주에 남겨두고 러시아에서 생활하는 학부모가 딸이 재학 중인 학교 교사의 학생지도에 감동해 단순한 감사편지보다 '가족을 떠나 와있어 딸 아이의 학교생활을 많이 염려했는데 '자식'으로 생각하며 잘 가르치려하니 국익을 위해 일하시라'는 학교 교무부장(정영숙 교사)님의 든든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는 감사 편지를 안 교육감에게 보냈다.

광주 남초등학교 5학년 재학중인 딸을 둔 아버지 김승욱(48)씨는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인 '광주사랑교육방'에 "가족을 떠나 와있어 딸 아이의 학교생활을 많이 염려했는데 '자식'으로 생각하며 잘 가르치려하니 국익을 위해 일하시라"는 학교 교무부장(정영숙 교사)님의 든든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는 감사 편지를 안 교육감에게 보냈다.

농협 전남본부 '그림·글잔치대회' 시상



박용순(뒷줄 왼쪽 세번째)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4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광양칠성초등학교 정세련 양(6학년)을 비롯한 6명에게 '농촌사랑 어린이 그림·글잔치대회' 우수작품상을 시상하고 '어린이동산' 6개월 구독권을 제공했다.

30대 귀농인 채원준씨, 친환경 '5색쌀'로 역대 부농 됐다

30대 귀농인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5색(色)쌀'로 역대 소득을 올리고 있어 화제다.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에 사는 채원준(33)씨는 진도의 소포만 간척지 6만여 평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5색 쌀을 생산, 기능성 쌀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해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사를 시작한 채씨는 4-H 활동을 하면서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찾아가 배우고 있다. 채씨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노화방지와 항암 효능이 뛰어나다는 검정쌀을 생산해 짙은색을 올리기 시작했다.

전국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데 가격은 700g 짜리 5봉지 1상자에 3만 5천 원으로 일반 쌀의 5배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우체국 택배와 직판행사 등 직거래 방식으로만 판매했으나 신세계 이마트 등 유통업체를 통해외 시장 공략도 모색 중이다.



제자들과 '30년 인연' 담은 수필집 출간 재미교포 최 미 자씨

"중앙여고·황룡중 교단 추억 담았어요"



사제(師弟)의 정은 30년의 세월도 뒤 어남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는 최미자(58·사진)씨가 이민 16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지난 2003년. 30여년 전 자신이 교사로 있던 중앙여고와 황룡중학교 제자들을 보기 위한 귀국이었다.

2001년 어느 날, 한국의 한 제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면서 추억은 현실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최씨가 공군 장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떠올린 제자가 10여년을 수수문한 끝에 현재 사는 곳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다.

대한 애뜻함을 표현한 글 등이 실렸다. 틈틈이 문학 잡지에 기고한 수필들도 함께 담겨 있다. 최씨는 오는 16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앨빈 토플러 "매일 신문 보느라 손끝 까맣게 된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로 유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79) 박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10대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글이 어떻게 읽힐까'를 생각한다. 여러분도 직업을 선택할 때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가진 특강에서도 "여러분이 영위해야 할 생활은 공장중심이 아닌 아이디어와 정보의 사회"라며 "새 사회에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익히는 학습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 이홍씨, 한국일보家 며느리



민중사와 계간 문예지 '세계의 문학'이 주관한 올해 제3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자인 이홍(29)씨가 여러모로 화제를 낳고 있다.

자를 공유하는 세 여성의 삶을 다룬 수상작 '걸프렌즈'가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요즘 20~30대 여성들을 사로잡은 독자로 불려들일 것으로 문단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작품으로 화려하게 등단한 이씨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조카 며느리이며 장재근 전 일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측

▲조흥현씨 장남 영근군 유민웅(하남급속 대표)씨 딸 현주양=10일(일) 낮 12시40분 예별루션웨딩 컨벤션 3층 컨벤션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동창·동문회

▲담양 참평중 10회(회장 신인중) 모임=5일(화) 오후 7시 진가네 식당. 011-9602-3000

모임

▲(사)장흥학당 제 288회 연찬회=5일(화) 오전 7시 장흥군청 휴게실. 061-863-8078

모집

▲광주항교 사서삼경 수강생 모집=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자·소학. 문의 672-7008

모집, 아빠 주말반 운영. 문의 385-0723

조소아과(원장)·김영포(의사)씨 병부상=발인 5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부향소. 231-8902

광주에서 30분 이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